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신설 확정에

# 어업인들 반발... 내륙 설치 불합리

### 군산시 관계자 "주 업무 원산지 단속... 어민과 큰 연관 없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관할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 전주에 신설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군산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道) 중 유일하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전북에 지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바다를 인접한 시군이 아닌 내륙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

의 검역, 수출 수산물의 검사,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품질인증·등록 제도, 수출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 등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한다.

공·항만이 있고 양식장이 밀집한 전국 13곳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1961년 설치된 장항지원에서 그동안 전라북도 전체를 포함한 대전, 세종시, 충청북 일부를 관할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유치 활동을 펼쳤고 전주지원 설치(안) 심사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 7월 행정자치부를 통과했으며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중 개소, 6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군산 지역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이나 CIQ(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의 약칭)기관, 수산질병센터,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집약되어 있어 군산에 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것은 기관 유치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전주에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주 업무가 원산지 단속으로 군산 어민들과 그리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조은건강' 첫 삽

#### 국가식품클러스터 3호 착공기업

익산시는 (주)조은건강(김한준 대표)이 국가식품클러스터 3호 착공기업을 로서 지난 25일 공장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으로 (주)조은건강은 고 품질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을 위한 기술집약적인 공장을 갖추게 돼, 미국에서 OEM으로 수입하던 완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설립된 (주)조은건강은 프로바이오틱스(밸티아이), 오메가 3, 비타민, 보조효소 등 16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대표기업이다.

작년 12월15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했으며, 내년 4월 3,000여평 규모의 기술집약적인 생산시설 설립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주)조은건강 김한준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우수한 연구개발 지원 시설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성평가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인체에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국내 건강식품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세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은 "(주)조은건강의 공장착공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6대 기업지원 인프라 지원에 힘쓰고 향후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독문의 288-9700



전북미래산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지난 2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6 전북 미래 산업 청년 채용·채용 페스티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드론과 3D프린팅 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 도 '부정청탁 의심 신고 1호' 22일 접수

### 공무원이 자녀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자료 부탁... 법 시행 이전·부정청탁 아나

전북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여 만에 법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지만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관련해 모 기관에 기관의 현장실습동의서, 실습지도자 경력증명서 등 현장

실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해 주기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신고 내용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 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 도 마치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인정을 달라는 청탁인 것처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도 감사관실은 또한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청탁일자가 지난 9월

13일로 청탁금지법 시행일(9월 28일) 이전 행위이므로 종결처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심신고는 공직자 등의 경우 사소한 부탁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은 더욱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순창 전 주민 저렴한 목욕서비스 이용

### 작은목욕탕 9곳 운영·구립면 내년 완공 읍지역은 취약계층 목욕로 지원

순창군이 10개면 중 9개면에 작은목욕탕을 완공해 운영 중이고 나머지 구립면 작은목욕탕을 내년 완공한다고 밝혀 내년이면 군의 모든 면지역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전북 최초의 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작은목욕탕은 천원으로 이용 가능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8개 작은목욕탕을 완공하는데 총 22억 5천만원이 투자됐으며 내년 착공하는 구립면 작은 목욕탕에는 2억 5천만원이 투자된다.

군은 또 읍지역에도 올해부터 취약계층 목욕로 지원사업을 시작해 읍지역 주민들의 여차별도 해소했다. 내년이면 사실상 순창군 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로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보조금과 목욕탕 업주 부담 비용을 제외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주민들도 2천원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작은목욕탕 운영부본에서도 합격점이다 주3일 격일제로 남자 1일, 여자 2일로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연 풍산, 팔덕면을 제외하고 7개 작은목욕탕 이용객이 현재까지 2만 3천여 명이다. 특히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기 불편해 하는 고령층들에게 면단위 작은목욕탕은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동계면에 작은도서관을 준공해 면단위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 작은영화관, 청소년센터,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 등 주민이 편안한 생활기반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황승주 군수는 "내년에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북체육회 스포츠진흥본부장, 직원 중 임용 가능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전북도체육회의 당초 조직개편(안)이 이사회에서 일부 수정됐다.

지난 25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의결했다.

당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은 기존 2차 1실 2부 7과 8팀을 1차 2본부 7과로 전환하고, 대외 업무를 주로 맡는 비상근 상임 부회장제 신설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환되는 조직개편은 그대로 가기로 했지만 2본부(스포츠진흥본부·경영지원본

부) 가운데 스포츠진흥본부장은 임원으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직원 중에서도 임용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가결시켰다.

당초 스포츠진흥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모두 임원으로 돼 있었다.

이처럼 2본부 가운데 1본부는 임원으로, 1본부는 직원으로 된 것은 최근 도 체육회 직원육성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최고결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뒤,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 확정짓게 된다.

## 전북도,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전북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인식을 위해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도는 정읍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주관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정읍 내장초등학교에서 호남권에 거주하는 33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호남권)'(이하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8월 완주 캠프에 이어 두 번째다.

가족캠프는 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게임과

몰입을 예방하며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게임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와 자녀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가족캠프에 신청한 학부모들은 "공부하느라 바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보고 싶었다", "컴퓨터와 핸드폰에만 빠져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 "가족과 함께 집밖으로 나와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연으로 캠프를 신청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